

문화사적으로 실패를 탐구한 《실패의 향연》 이번에는 좀 더 세련되게 실패해 보자

글_정윤희 기자



《실패의 향연》
크리스티아네 쉘린트 지음 | 오승우 옮김 | 들녘 | 269쪽 | 값 13,000원

성공하기 위한 전략이나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 가운데 《실패의 향연》은 유난히 고독해 보인다. 성공을 논하는 자리는 있어도 실패를 털어놓는 자리는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이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실패는 입 밖에 절대 꺼내서는 안 될 금기어가 됐다. 남에게 실패를 드러낸다는 것은 곧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떡해서든 근사하게 포장해서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실패했던 기억을 마음 깊숙이 넣어두었

을 뿐이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저자는 《실패의 향연》에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르게 의미작용을 한 실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실패에 대해 문화사적 접근을 한 이 책은 문학작품, 그림, 음악, 영화, 연극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실패의 본질을 연구하고 있다. 《실패의 향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 만을 이야기 한다. 실패를 바탕으로 성공하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는다. 실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독일어로 '실패하다'(scheitern)는 '장작개비'(Scheit)라는 명사로부터 나왔다. 저자의 설명을 보자. "장작개비는 가늘게 자른 나무조각을 의미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실패하다'에는 '쓰레기가 되다'라는 뜻도 있다. '실패하다'는 난파선을 일컬을 때 가장 많이 쓰였다. 17세기까지는 배가 침몰하거나, 그 나무로 된 뱃머리가 암초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면 항해에 실패했다고 이야기 했다. 17세기 이후에야 사람들은 이 실패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도 사용했다. 배뿐만 아니라 계획, 희망, 사랑, 행운, 이상이 부서졌을 경우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

실패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우리는 실패라는 단어를 곰곰 생각해 본 적도 없거니와 실패의 정의를 내리는 것조차 인색하다. 저자는 실패의 정의를 "한계에 다다랐음"이라고 설명한다. 실패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유명한 그림으로 <이카로스의 추락>이 있다. 16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피테르 브뢰헬이 그린 그림이다. 저자는 《실패의 향연》에 <이카로스의 추락>을 보여주면서 "타인의 실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감정을 강조했다"고 설명한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자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먼 곳에서 지켜보고만 있다. 이유는 실패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이카로스 신화가 나오는데 이 장면을 읽고 브뢰헬이 그림으로 그렸다.

이 그림을 분석한 저자는 "한계와 한계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뒤섞어 놓았다"고 풀이했다.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세계에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추락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베케트는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한 사람이다. "끊임없이 시도했다. 그때마다 실패했다. 늘, 다시 시도했다. 또 실패했다. 이번에는 좀 더 세련되게."

사무엘 베케트의 표현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저자가 보헤미안의 이야기를 설명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제안한 부분은 어떤가.

"일단 높은 목표(예술가로서의 삶)를 세운다. 그리고 거기서 추락의 높이(보헤미안의 삶)를 뻗는다. 그러면 더 떨어질 곳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추천**